

“기본 중의 기본 전략”... 올해도 ‘리스크 관리’에 방점

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1〉우리금융

신년사 통해 경쟁력 제고 등 내세워 최근 5년간 횡령 등 고객들 실망감 상반기 자산 건전성 등 관리에 집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금융의 경영 전략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코로나 19 여신 지원 연장과 금리인상기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제 대응한다는 포석이다.

우리금융은 2일 올 신년사를 통해 ▲그룹 경쟁력 제고 ▲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ESG 경영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 제시한 ▲수익·성장기반 확대 ▲디지털 초(超)혁신 추진 ▲핵심 성장동력 육성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기업문화·브랜드·ESG 레벨업(강화) ▲그룹시너지·경영효율성 제고 등과 유사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는 내·외부



우리금융그룹 전경, (작은 사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5년 동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라임사모펀드사태, 우리은행 700억원

대 횡령 등 투자자들과 고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왔다.

이 과정에서 손태승 회장은 내부통제 관리 실패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여신지원 연장과 금리인상기로 인한 불확실성 리스크 등이 남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올 한해 ‘불확실성 대응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 정교화’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금융권에서 기본 중의 기본 전략일 것”이라며 “상반기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산 건전성, 자본비율, 유동성 관리에 집중해 체력을 적절히 비축하고 코로나 여신지원 연장에 따라 건전성에 착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 개선안들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금융사고 예방 업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전 그룹사가 완벽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상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감사부’를 신설했다. 내부감사 조직인 감사실에서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상시 감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표준화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손 회장은 “지난 4년간은 그룹체제 안착이 중요 과제였다면 올해부터는 인사, 조직문화 등 그룹체제에도 고강도 혁신해야 한다”며 “그동안 응축했던 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대한 주요 법률적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기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스쳤는데 뒷목 잡아”... 나이롱환자 막는다

올해부터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목덜미를 붙잡고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둔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누수에 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자동차 사고를 통해 경상을 입었더라도 상대 보험사에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경상환자는 골절과 척추염좌를 제외한 12~14급 상해 환자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릴레이에 나섰다. 보험료를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포함해 평균 2.9%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이후 계약부터 2.5% 인하한다. 이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인하율을 2.0%로 결정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빼든 만큼 자동차 보험 누수 예방은 필수적이다. 기존 자동차 사고는 경중과 관계없이 가해 차주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보험금 수혜액을 높이기 위해 초호와 한방병원 입원과 처방처방 등 과잉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5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와 허위 청



건인 차량이 사고 후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금감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적용 ‘불완전 판매’ 등 개선책 마련 박차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 릴레이

구 비중이 크다면 대인배상 청구 관련 제도를 손보며 치료비 부풀리기 비중이 높다면 피해자의 진료형태 개선에 방점을 두고 개선책을 강구했다.

보험업계 또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잉진료는 보험료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과실책임주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간 일선 담당자들 또한 과잉진료를 의심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들 또한 비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인 만큼 사고 당사자들에게 비율 산

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계 또한 범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감시와 당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실책임주의 시행을 앞두고 후유증 등에 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여서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험료 누수를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조가 유지돼 가입자 입장에서 이익이라는 것.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잉진료와 처방처방 등 보험업계와 선량한 가입자들의 골머리를 썩이게 하는 부분들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하나생명, 임영호 신임 사장 취임

조직문화 혁신 등 슬로건

임영호 하나생명 신임 사장(사진)이 취임했다.

하나생명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13층 본사 강당에서 임영호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신임 대표는 하나생명의 경영 방침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영업채널 다각화 ▲조직문화 혁신 ▲손님과 현장 중심 경영 등 세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다.

임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오늘의 하나생명이 있기까지 굳건한 신뢰와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손님 여러분과 손님의 믿음직한 위험관리 파트너로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신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새로운 규제 속에



보험 산업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으나 하나생명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생명보험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은 임직원들과 함께 하나생명의 발전을 염원하는 힘찬 구호로 마무리했다. 임영호 신임 대표는 취임식이 종료된 직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임 대표는 “하나생명의 대표이사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늘 옆에 함께 하겠다”며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SC제일銀 ‘일북리저축예금’ 첫 거래시 특별금리

3000만원 이상... 최대 20억 이내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일북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 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3.0%(연, 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북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맡기는 파킹통장이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일북리저축예금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까지 특별금리를 제공해준다. 이벤트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별 가입한도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이다.

일북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1.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이면 0.6%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미만이면 0.1%다.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